

중년에 떠나는 미국 남부 로드트립 2

박형일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겸임교수 / 前 YTN IT시스템팀 부국장



지난 호에서는 로드트립의 전체 일정과 준비물을 소개하고, 출발인 4월 9일부터 20일까지의 여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남은 일정을 통해 미국 동남부를 느껴보자.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4월 21일~22일

뉴올리언스 관광지 : 프렌치 쿼터, Jackson Square, Cafe Du Monde, Frenchmen Street, Garden District, The National WWII Museum, 뉴올리언스 시티 파크 등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가는 길



서부지역(뉴멕시코) 도로

휴스턴에서 밤새 천둥·번개와 비바람이 거셌던 터라 중간중간에 침수지역 경고가 많았다. 렌터카 와이퍼가 워낙 안 보여서 중간에 월마트에서 자비로 교체하고 6시간을 운전해서 뉴올리언스에 오후에 도착했다. 텍사스까지 서부지역을 운전할 때와 다르게 루이지애나 이후 동부지역의 운전은 길에 나무도 많아서 운전하는 내내 눈이 편안하다.

뉴올리언스 숙소에 짐을 풀고 프렌치 쿼터를 저녁 늦게까지 밤에 돌아다녔다. 재즈와 클럽들과 지독한 냄새가 나는 흡연가들 천국이다. 지나가면서 Bar의 재즈 음악을 감상하면서 분위기를 느껴본다.

다음날은 뉴올리언스 남쪽으로 미시시피강 끝까지 다녀와서 커다란 City park에서 예술작품도 구경하며 여유 있는 휴식을 즐겼다. 한국인 62년생 서두호님의 (2011년) 작품이 정문 근처에 크게 전시된 것을 보니 새삼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마음이 뿌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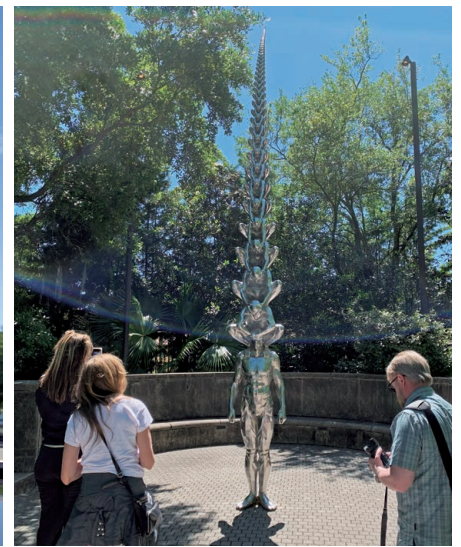
뉴올리언스 다운타운



뉴올리언스 프렌치 쿼터



뉴올리언스 시티 파크



시티 파크 한국인작품

📍 플로리다 펜서콜라, 탤러해시, 4월 23일~24일

펜서콜라 관광지 : 펜서콜라 비치, 국립 해군 항공 박물관, 펜서콜라 등대와 해양박물관, 펜서콜라 역사 마을 등

탤러해시 관광지 : 플로리다 주정부 사무소, 탤러해시 자연과학 역사박물관, 플로리다주립대 등

드디어 여행은 후반부로 접어들어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플로리다 뉴올리언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숙소의 호스트(할머니)가 말한 펜서콜라의 긴 백사장의 모래는 눈이 온 것처럼 진짜 희다. 해변가만 30분 이상을 운전했다.

그리고 3년 전 퇴사한 YTN 동료가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의 주도 탤러해시로 향했다. 시골길을 꼬불꼬불 들어가서 옛 동료의 집에 도착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아 여기에 머물면서 꿈을 이뤄가고 있다. 박사의 꿈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옛 동료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정말 보기 좋았다. 다음날 동네에서 골프 치고, 귀한 라면 먹고 플로리다주립대와 자동차박물관에 다녀왔다. 탤러해시는 플로리다 주도지만 미국의 조용한 시골 도시이다.



펜서콜라 해변



플로리다 비지터센터



펜서콜라 해변



YTN 옛 동료와 골프 회동



자동차박물관



플로리다주립대 산책

📍 플로리다 올랜도, 4월 25일

올랜도 관광지 : 월트 디즈니 월드 리조트,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 씨월드 올랜도, 디즈니 스프링스, 레고랜드 플로리다 리조트, 올랜도 사이언스 센터, 올랜도 아이, 올랜도 프리미엄 아울렛, 고 가터 올랜도 등

텔러헤시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훌륭한 대접을 받고 떠나려는데 고향에 대한 향수와 추억으로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필자도 운전하고 나오면서 눈가가 축축해졌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2시간 남짓을 달려 올랜도에 도착했다.

올랜도에 볼거리가 참 많지만 어른 혼자 가면 재미없는 디즈니 월드와 기타 관광은 생략하고 올랜도 Eye에서 관람차를 타며 도시 전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올랜도는 그렇게 찍고 가기로 했다.

에피소드 올랜도의 숙소는 Mai Hana 호텔, 체크인하는데 호텔리어가 한국을 무지하게 좋아한다. 심지어 얼마까지 페이스타임으로 연결해서 한국말로 인사를 시켜준다. 나중에 기념으로 천 원짜리 지폐를 주었더니 받는 장면을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난리... 호텔 사장은 일본인인 것 같았지만, 한류 열풍에 매우 기분 좋은 호텔이었다.



올랜도 Eye에서 바라본 도시 전경



메인 어트랙션인 올랜도 Eye 관람차

📍 플로리다 키웨스트,
4월 26일

키웨스트 관광지 : Southernmost Point, 헤밍웨이의 집
과 박물관, Mallory Square, Duval Street, Duval Street
Food Market 등

올랜도에서 출발해서 6시간 반을 달려 마이애미 키웨스트 땅끝마을(Southernmost Point)에 도착했다. 키웨스트의 유명한 랍스터 샌드위치를 맛나게 먹고 헤밍웨이의 집(박물관)으로 도착했지만 관람 시간이 지나서 아쉽게도 집 앞에서 사진만 찍었다. 키웨스트에서는 비싼 호텔비를 지불한 보람이 있게, 호텔 전경과 저녁노을이 너무 좋았다.



키웨스트 땅끝마을 가는 길



마이애미 키웨스트의 땅끝 지점



키웨스트의 헤밍웨이 집



키웨스트의 저녁노을

📍 마이애미 비치, 4월 27일

마이애미 관광지 : South Beach, Biscayne National Park, Wynwood Walls, Little Havana, Bayfront Park 등

지난번 올랜도에서 한류열풍에 놀랐지만, 키웨스트에서 마이애미로 올라와서 지도를 찾아보니 의외로 한식당이 많았다. 오랜만에 먹는 라면과 김밥에 맛이 좋았지만 김밥콤보의 가격이 44,000원이다. 여기도 치솟는 물가를 경험하고 새삼 놀랐다. 다음날까지 마이애미 비치와 팜 비치에서 아름다운 해변과 주변 볼거리를 보면서 휴식을 취했다.

에피소드 운전 중에도 마이애미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기 위해서, Fast lane으로 실선을 넘어서 0.5마일 정도 빨리 진입했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경찰이 갑자기 따라 붙어서 깜짝 놀랐다. 경찰이 조금 따라오면서 차량번호판을 보는 듯하더니 플로리다 번호판이고 경미해서 그냥 지나쳐 갔던 것 같다(교통법규 지키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음).



어마어마한 가격의 김밥콤보



마이애미 한식당 앞 태권도장



마이애미의 Wynwood walls



마이애미 비치



마이애미 팜비치



Wynwood walls의
월크를 닮은 조형물

📍 조지아 서배너, 애틀랜타, 4월 28일~5월 1일

서배너 관광지 : 포사이드 파크, 서배너 역사 지구, 티피 칼리지, 리버 스트리트 등

애틀랜타 볼거리 : 조지아 아쿠아리움, 월드 오브 코카콜라, 애틀랜타 식물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국립 역사 공원, 피드몬트 파크, 스톤마운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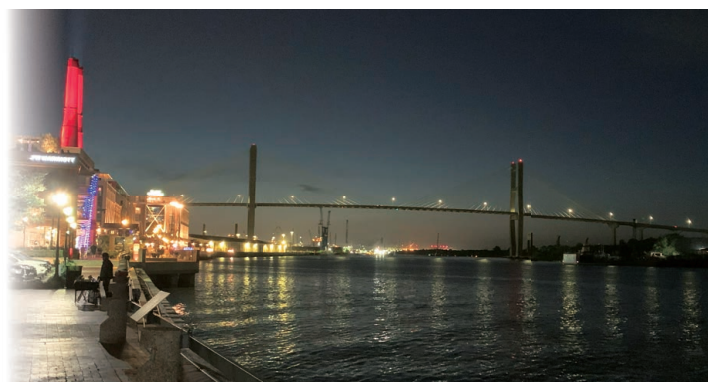
휴양지 같은 마이애미를 뒤로하고 조지아의 서배너로 이동해 유럽풍의 아름다운 다운타운을 경험하고, 다음날 15년 전 추억이 있는 애틀랜타로 이동했다. 애틀랜타는 박사과정 도중에 1년간 연수왔던 곳이라서 감회에 젖어서 추억의 장소를 돌아다녔고, 정들었던 옛사람들을 겨우 수소문해서 추억을 떠올리며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 애틀랜타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3번째로 한인사회가 잘 형성된 도시이고 한국산업시설도 많아서 한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CNN, 코카콜라, 수족관, 노예시장, 루터킹 박물관 등 유명한 볼거리가 많고 특히 스톤마운틴은 마그마 Pool이 굳어져서 생긴 산으로 넓은 평지 주위 500km 이내에는 높은 산이 없어서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진다. 젊은 시절에 와서 정을 두었던 곳이라 감회를 뒤로한 채, 떠나려니 눈물이 핑 돌았다.



조지아 서배너 다운타운



서배너 다운타운 거리



조지아 서배너 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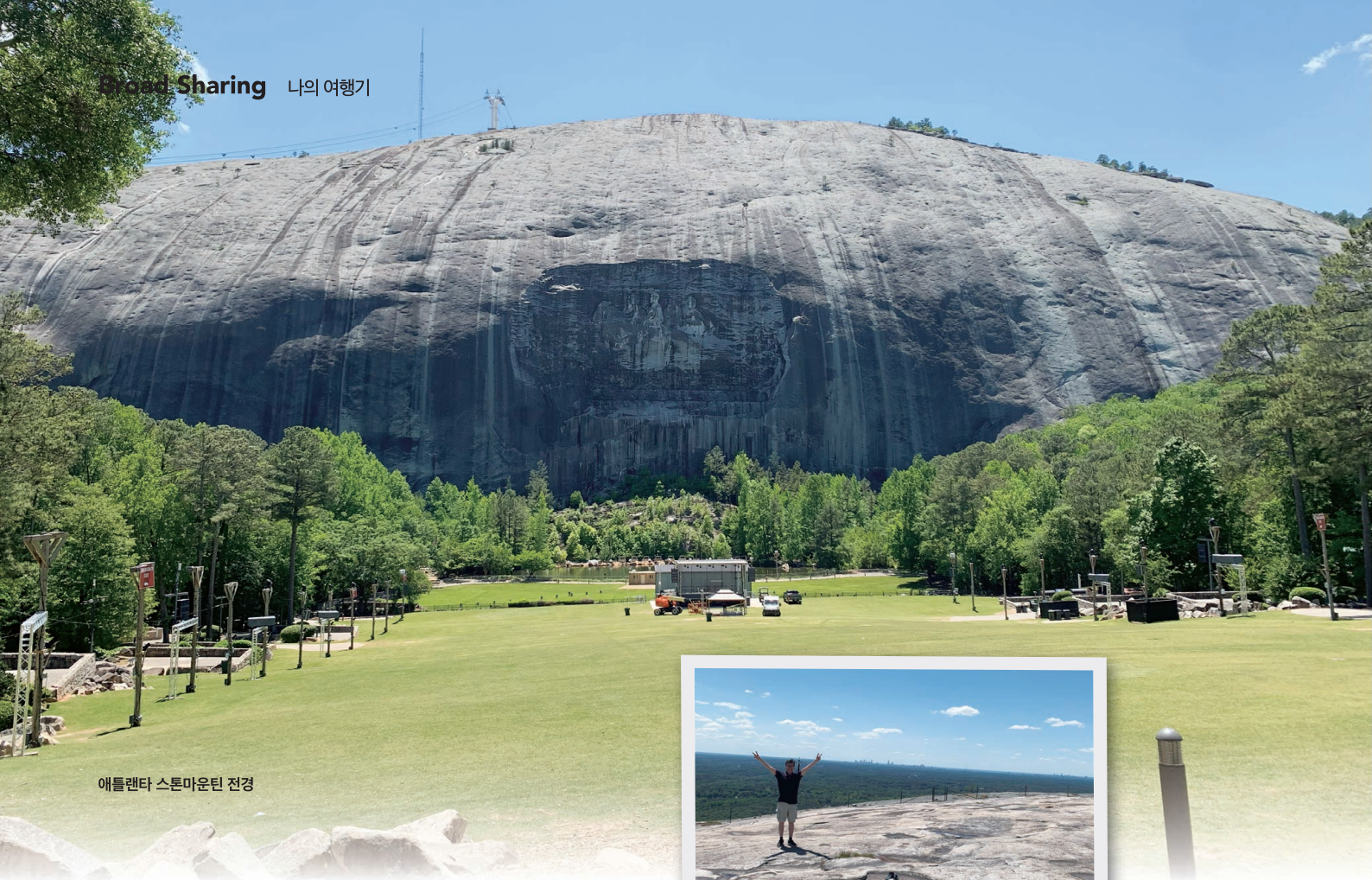
조지아텍 교정



15년 전 살던 APT



15년 전 거닐던 공원 산책



애틀랜타 스톤마운틴 전경



애틀랜타 스톤마운틴 위에서

📍 여행의 마무리. 동부에서 서부로, 샌디에이고, 5월 2일~7일

샌디에이고 주요 볼거리 : 라호야 코브, 발보아 파크, 샌디에이고 동물원, USS 미드웨이 박물관, 가스램프 쿼터, 코로나도섬, 씨월드 샌디에이고, 카브리요 국립 기념물, 리틀 이탈리아, 오션 비치 등

캘리포니아 - 네바다 - 유타 - 뉴멕시코 - 텍사스 - 루이지애나 - 플로리다 - 조지아를 거치면서 5,720마일 (9,200km)을 여행한 차를 반납하고 애틀랜타 공항에서 LA로 향했다. 시차 때문에 애틀랜타에서 5시 비행기를 4시간 반을 타고 LA에 도착하니 6시 30분이다.

저녁에 도착한 LA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렌터카를 다시 픽업해서 샌디에이고로 향했다. 샌디에이고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내며 남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기로 했다. 샌디에이고는 사시사철 쾌적한 기후라서 휴양 도시로 불리기도 한다. 멕시코 국경이 가까

운 덕에 경찰이 많아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지만, 물가는 좀 비싼 편이라 부유한 사람들의 은퇴 도시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가장 크고 저렴한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쾌적한 기후와 태평양 해변 자연환경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나중에 샌디에이고 한 달 살기를 생각하면서 곳곳을 여행했다.

에피소드 LA에서 샌디에이고로 유료도로를 통과했다. 페널티 받기 싫으면 Thetollroads.com 접속해서 5일 내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 웹 접속해서 지불하려고 했더니만, 사전 지불 카드를 사용하거나 이후에는 렌터카와 계약에 따라 해야 한다고 렌터카 회사에 물어 문의하라고 쓰여 있다. 휴스턴이나 다른 곳들은 'pay by mail' 또는 'pay by plate'라고 쓰여 있더라, 캘리포니아는 'penalty'를 물린다고 쓰여 있다. 결국 나중에 귀국 열흘 후까지 서너 번 날아온 Toll 비용은 렌터카 회사 서비스 차지를 포함해서 \$100을 훌쩍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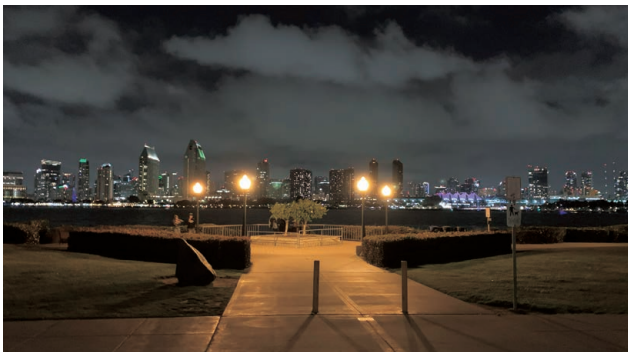
샌디에이고 라호야 코브



샌디에이고 USS 미드웨이



샌디에이고 콜로라도 호텔



콜로라도 섬에서 본 샌디에이고 다운타운 야경



다운타운, 리틀 이태리



샌디에이고 카사델프라도



스페니시 아트 빌리지



샌디에이고 발보아 파크 산책



스페니시 아트 빌리지의 조형물



샌디에이고 전경이 보이는 Kate Sessions Memorial 파크



이번에 경험한 여행 팁과 유의 사항



나중에 미국 자동차로 싸돌아다니기를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여행비용과 주의 사항 Tip을 약간 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저렴하게 여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총경비는 항공편을 제외하고 약 1,000만 원 소요되었다. 한 달간 매일 33만 원을 먹고 자는 비용으로 썼다. 비행기 예약은 6~8주 전 스카이스캐너 앱으로 구매하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듯하고, 가끔 2~3주 전 팅처리 항공권 LA 편도 \$107도 어쩌다 등장하지만, 여행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

매일 저녁 다음날 운전해야 하는 지도를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오프라인 업데이트는 필수이다. 여행지역이 넓다 보니 운행지역 날씨 모니터링은 필수이고, 가능하면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 여행을 추천한다. 요즘은 미국 유료도로는 현금 지불 방식이 거의 없고 대부분 무정차 통과 형태이므로, 이용했다면 나중에 렌터카 회사의 서비스 비용을 추가하여 약 2.5배로, 렌터카 반납 후 약 10일 지나서 날아온다. Toll 비용 내기 싫다고 귀국 후 바로 카드 정지하면, 다음번 입국이나 차 대여 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로드트립을 위한 숙소는 여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너무 이른 예약은 좋지 않을 수 있고, 리뷰를 잘 살펴봐서 위험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피할 수 있다면 좋다. 특히 올드타운이나 너무 저렴한 동네 근처는 위험

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약사이트에 따라 세금과 서비스 비용이 불포함으로 표시되어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고, 비교사이트는 평균가격이나 특정 가격률만 비교할 뿐 최저가가 아닐 경우가 많아서 너무 저렴한 룸은 그 값을 한다.

현금은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카드에 환율이 쌀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좋고, 수수료가 있더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많다. 결제영수증은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보관하면 편리하다. 특히 주유소는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사진으로 찍으면 위치까지 저장 가능해서 나중에 추적이 편리하다.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처음 결제할 때 Open 되어 먼저 계산되고, 나중에 팁을 포함한 금액이 재결제되고 첫 결제 금액이 취소되어 Closed 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비용이 제멋대로 들락날락해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미국 서부 산호세에서 출발하여 남부지역과 동부 애틀랜타를 거쳐 다시 샌디에이고를 둘러보는 9,922km의 여정이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LA~서울 비행거리 9,767km를 조금 더 넘긴 여정이었다. 인생 버킷리스트 중 일부를 성공해서 스스로 조금 뿌듯하다.

이번 여행은, 미국이란 넓은 땅의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55살 된 올드보이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약간의 모험이었고 흔치 않은 인생 경험이었다.